

현대중공업, 지능형 모터 제어기 개발

현대중공업(주)(대표 : 조충휘)는 최근 원격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모터 제어기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능형 모터 제어기는 모터를 최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보호, 제어 및 계측하는 장비로 통신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격 감시시스템과 연결, 사무실 내에서도 모터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첨단 제품이다.

그동안 사용되던 각종 모터 제어기가 제각기 사양이 달라 표준화가 어려울뿐 아니라 작동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 비해 이번에 개발된 지능형 모터 제어기는 모든 작업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터의 가동 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던 제어기를 4가지 종류로 표준화 함으로써 제작기간을 줄이는 한편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핵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여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현대중공업이 순수 자체기술로 지능형 모터 제어기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함으로써 이제 국내 모터 제어기술 또한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능형 모터 제어기는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동남아와 중동, 남미지역은 아직 성장 초기단계여서 시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이들 지역에 대한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 비중을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방폭형 전동기 북미지역 수출길 활짝

현대중공업(주)(대표 : 조충휘)가 최근 자체 개발한 방폭형(防爆型) 전동기에 대해 캐나다 표준규격협회(CSA :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로부터 품질인증서를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캐나다 표준규격협회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방폭형 전동기는 주로 화학공장등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전동기로 안전을 위해 스파크가 생기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것이 특징.

소·중형은 물론 720볼트, 7천250마력급 대형 전동기까지 동시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 '98년 일반 전동기에 대한 캐나다 품질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방폭형 전동기에 대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캐나다 및 미주시장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속도조절이 가능한 인버터 전용 전동기 및 방폭형 전동기의 세계시장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만큼 북미뿐 아니라 유럽 및

중동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영업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디파워, 중국에 전력제어기등 수출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가 세계최대 전력기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전력제어기와 Web기반 소프트웨어를 수출한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박기주 사장, 김광순 본부장과 중국측의 利健대련전력국장, 菊妹友대련전력국경제개발외교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곤광전기 魯溪雄 사장과 지능형 전력제어기와 전력소프트웨어를 2000년도에 1,000세트(50만달러 규모), 2001년부터는 연간 10,000세트(500백만달러 규모)를 계속 공급하기로 수출계약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기주 사장과 魯溪雄 사장은 전력분야의 첨단디지털 기기류와 인터넷으로 운용되는 전력안전관리시스템을 여순 곤광전기에 우선적으로 공급

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중국의 利健대련전력국장은 케이디파워의 지능형전력제어기와 전력소프트웨어를 에너지절약형전력기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국 전력청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앞으로 2003년까지 현지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박기주 사장은 "이번 중국대표단은 지난 '99년 3월 북경전기전시회에 출품된 지능형전력제어기와 Web소프트웨어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실제 운전되고 있는 경남 마산지역에 설치된 일본의 산요공장을 확인하고자 내한했다"며 세계 최대전력기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전선, 저독성 난연 케이블 'KS 획득'

LG전선(주)(대표 : 권문구)이 업계 최초로 환경친화형 저독성 난연케이블에 대한 한국산업표준규격(KS)을 획득했다. LG전선이 지난 1월 28일 KS 인증을 받은 저독성 난연케이블은 불에 잘 타지 않고 유독성가스를 최소화해 화재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 전력과 통신두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저독성 난연케이블은 특히 지금까지 종로 통신구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참사 등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나 표준화가 안돼 있던데다 가격이 비싸 시공시 외면을 당했던 점을 들어 이번 KS인증에 대한 의의가 깊다.

LG측은 이같은 KS인증을 계기로 그동안 군사용 병원 지하통신구 등 특수계통에만 쓰였던 저독성 난연케이블의 범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해말 저독성 난연케

이블에 관한 KS인증 규격을 채택한 바 있다.

한성중전기, 특고압 콘덴서 양산

한성중전기(대표 : 강용주)(<http://www.hansungl.co.kr>)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3,300V 이상 특고압콘덴서를 이달부터 양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이천전기의 특고압콘덴서 생산설비를 인수한 한성중전기는 최근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고압콘덴서의 수

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올해 월 150대 이상의 특고압콘덴서를 생산,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이 회사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콘덴서 신뢰성 시험 설비등을 도입, 특고압콘덴서의 품질강화를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LG전선, 핵심사업 전환

LG전선(주)(대표 : 권문구)는 일반전선 케이블 사업 중심에서 광통신 첨단 전자부품사업 중심으로 핵심사업을 전환한다.

LG전선은 이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광통신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TFT-LCD용 편광막과 배향막, 리드프레임 등의 반도체 부품 생산에 본격 나선다.

권문구 LG전선 부회장은 2월 14일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기경영계획 등 새천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중기경영계획에서 LG전선은 현재 일반전선 50%, 산업기계 25%, 광통신 13% 등인 매출 비중을 2002년에는 광통신(25%)을 주력으로 삼고 일반전선 22%, 반도체부품과 산업기계를 각각 20%, 초고압 케이블 13% 등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현재 180만피이버km인 광섬유 생산능력을 올 5월까지 300만피이버km로 확충하고 오는 2002년까지 500만피이버km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광통신 확장사업 투자액은 올 5월까지 450억원, 2002년까지는 총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부품별 전문공장화 계획에 따라 안양공장은 기존 생산품인 케이블과 와이어설비는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고 대신 65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부품 중심의 무공해 첨단부품산업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양공장에서는 앞으로 리드프레임과 필름형 전선, TFT-LCD용 편광막과 배향막 등의 반도체 부품생산 전문공장이 된다.

권 부회장은 "이 같은 확장계획은 초고속 정보통신과 인터넷, 무선 이동통신 등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신규 개발중인 반도체 부품의 사업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규투자가 가시화되는 오는 2002년의

매출은 올해 예상매출 2조원보다 약 7,000억원이 늘어난 2조7,000억원, 경상이익은 2,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전선, 광통신사업 확대

대한전선(주)(대표 : 유채준)가 광케이블 사업을 강화한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12일 총 500억원을 투자, 광섬유 생산능력을 200만f/km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되는 설비는 국내 최초로 광섬유모재(프리폼)당 1,000km 이상의 광섬유 생산능력을 갖춘데다 기술·효율면에서도 세계 최첨단설비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전선측은 "이같은 투자방침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화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광케이블 수요가 폭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해 총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 '98년 금액 대비 82%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해온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3,200만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통신·광통신 터키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등 해외사업 확대도 광케이블사업 증대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의 광섬유제조 방법은 일본 스미토모 후지쿠라 후루가와 등이 채택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VAD(Vapor Axial Deposition) 공법으로 광섬유 양산에 필요한 클래딩용 석영관을 수입하지 않고 전합성방법에 의해 코아와 동시에 제조할 수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장장저손실 광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을 비롯, 차세대 광섬유인 파장분할 다중전송(WDM) 전용 비영분산 천이광섬유를 개발, 국내 최초로 160Gbps, 640km 전송실험을 마친 상태이다.

삼흥중전기, 업계 최초 "폴리머피뢰기" 한전 등록업체 선정

삼흥중전기공업(주)(대표 : 조형기)는 최근 동종업계 최초로 배전용 폴리머피뢰기(18kV 5kA) 한전 유자격공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높은 기술력을 과시함은 물론 향후 매출이 크게 늘 전망이다.

배전기자재 종합 제조업체인 삼흥중전기는 지난 '95년부터 약 10억원을 투입해 한전과 공동으로 폴리머피뢰기 및 핵심 소재인 ZnO소자를 개발해

왔으며 '97년말 개발시험에 합격, '97년 12월부터 한전 시사용에 들어가 최근 최종 성능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앞으로 대규모 한전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폴리머피뢰기는 절연재를 기존 애자에서 폴리머로 대체, 절연능력은 물론 설치 운반 사고예방에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는 차세대 피뢰기로서, 지

난 '98년부터 민수시장에 공급돼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작년초 일본 관서전력에 처음으로 시제품 30여대가 수출돼 현재 현장 검증을 받고 있어 향후 대규모 수출도 기대된다.

삼흥중전기는 "국내 피뢰기시장은 한전 공급물량이 약 60~70%에 달한다"고 전제, "한전이 피뢰기를 애자형에서 폴리머형으로 대체할 방침이어서 향후 폴리머피뢰기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전선, 2,700만弗 말聯지중케이블 공사 수주

대한전선(주)(대표 : 유채준)이 말레이시아에서 2,700만달러 규모의 극초고압 지중케이블 공사를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최근 말레이시아 전력청이 실시한 2,700만달러 규모의 극초고압 지중케이블 턴키프로젝트 국제입찰에서 이태리의 피렐리, 프랑스의 알카텔등 해외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전선은 275Kv급 극초고압 OF(Oil Filled·오일절연체) 지중케이블을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전선업체가 해외에 수출한 지중케이블중 최고 전압은 초고압 수준인 132kv로 극초고압 케이블 시장은 선진국에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현재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을 선적중이며 3월부터 시공에 들어가 올해말에는 완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이미 싱가포르 전력청에 230Kv OF 초고압 지중케이블을 납품한 바 있으며 이번 수주로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물량도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XLPE케이블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외에서의 OF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수주는 극초고압 분야의 국내기술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83년 국내최초로 말레이시아에 132kv OF 초고압지중케이블을 턴키방식으로 수출한 이후 최근까지 총 5억달러가 넘는 턴키프로젝트 수출을 완료하는 등 현재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지중케이블 전량을 수주한 바 있다.

대연전자, 칠레에 패널용 메타 수출

전력보호계전기 및 패널용 메타 전문제조업체인 대연전자(주)(대표 : 이창근)가 국내 최초로 남미 칠레에 패널용 메타를 수출했다.

대연전자는 지난 '99년 12월 패널용 메타샘플을 현지에 보내 전기기기안전시험기관으로부터 까다롭고 엄격한 성능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판정을 받

았다. 메타수출은 지난 1월 중에 모두 선적했다.
 특히 대연전자는 이번에 패널용 메타를 OEM 브랜드가 아닌 자사브랜드로 칠레에 수출함으로써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을 남미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주력업종인 전력보호계전기와 더불어 패널용 메타의 해외수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앞으로 남미시장은 물론 미주시장의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해외영업담당자는 “대연전자는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을 무기삼아 동남아,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OEM 방식을 기본으로 해외수출하는 것에 반해 대연은 OEM 방식이 아닌 자사 고유브랜드로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해 한국산 전력보호계전기와 패널용메타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알리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대연전자는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함께 중동(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Middle East Electricity 2000'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대연전자, 선박용 결상계전기 GL 인증

전력보호계전기 전문업체인 대연전자(주)(대표:이창근)는 선박용 결상계전기(Phase Fail Relay)를 독일 Lloyd사로부터 GL선급인증을 획득했다.

이 회사가 지난 '99년 2월부터 1년간에 걸쳐 국산화에 성공한 선박용 결상계전기는 선박의 스티어링기어의 결상보호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선박업계는 비싼 로얄티를 주고 해외로부터 수입했다.

대연전자는 이 제품을 까다롭고 철저한 IEC 규격과 특수한 성능시험, 전자파영향시험(EMC)에

합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해외 유명 선박인증기관인 독일 로이드사로부터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각종 해양선박에 필요한 보호계전기의 국산화 기틀과 국내 선박제조업체의 수입의존도를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연전자는 육상용 수·배전반 전력보호기기를 주로 생산해 왔으나 이번 선급인증획득을 계기로 앞으로 해양선박용 배전반의 각종 전력보호기기를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LG산전, 신제품 출시 및 전자개폐기 단일화

LG산전(주)(대표:손기락)는 생산제품중 기중차

단기(ACB)와 배선용차단기(MCCB)에 대하여 기

존제품과는 별도로 성능 및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 하였으며, 또한 중·소용량 전자개폐기에 대해서는 2000년 5월에 출시될 신제품으로 단일 화할 계획이다.

1) Ace-MEC ACB

▶ 기존 일반형/보급형에 추가되는 Series임.

- 출시시점 : 2000년 2월
- 기본정격 : 630~3000AF

* 기존생산/판매중인 일반형, 보급형제품도 계속생산

2) Meta-MEC 가조정형 MCCB

▶ 기존 Meta-MEC Series에 추가되는 가조정형 Series임.

- 출시시점 : 2000년 1월
- 기본정격 : 250AF이하 기준

* 기존생산/판매중인 Hi-MEC 및 Meta-MEC 제품도 계속 생산

3) Meta-MEC 중·소용량 MS

● 출시제품 : GMC-시리즈(GMC-9~85)

- 출시시점 : 2000년 5월

● 단종제품 :

· CH-시리즈(CH-3~15N)

- 단종시점 : 2000년 4월

· SMC-시리즈(SMC-10P~80P)

- 단종시점 : 2000년 10월

* 단종일은 생산중단 월을 나타내며, 단종시에는 해당시리즈에 관련된 제품도 동시에 단종

* 100-800AF의 대용량 MS제품은 '98. 9월부로 GMC-시리즈로 단일화 완료

서진정밀, 미래형 금형개발 추진

‘최첨단 정밀금형제품을 제작해 드립니다.’

각종 금형제작과 플라스틱사출 성형전문업체인 (주)서진정밀(대표 : 장재산)이 새천년 원년인 경진년을 맞이해 제2도약을 선언했다.

서진정밀은 지난 20년간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가전제품, 사무OA기기의 정밀금형제작과 플라스틱 사출 성형제작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최첨단 정밀금형제품개발로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서진정밀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눈부신 기술변천으로 각종금형제작과 플라스틱사출성형기술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판단, 미래형 최첨단 금형제작개발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설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래의 최첨단 금형제작을 위해 이미 CAD/CAM SYSTEM과 전 공정 CNC공작기계를 도입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우수한 전문기술진과 기술개발부를 두어 신기술과 신제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금형사업부는 전기·전자제품을 비롯 반도체, 정보통신기기의 정밀금형제품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확히 제작해 수요처들로부터 ‘확실한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서진정밀의 금형제품은 이미 신도리코, 삼성, 현

대, 대우등 대기업은 물론 우영, 서진인스텍, 새한 미디어, 대방전자, 제일엔지니어링(주)등에 공급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장재산 사장은 “서진정밀은 다기능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의 다양한 금형제품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작·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고객욕구에 적극 부응해 고품질·고신뢰성의 정밀금형과 플라스틱사출성형을 공급해 우리나라 기초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공업, 화력발전용 터빈제어시스템 자체제작 성공

한국중공업(주)(사장 : 윤영석)이 화력발전소용 터빈제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자체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한중은 최근 250MW급 서천화력용 디지털 터빈제어시스템의 제작을 완료했으며 이를 서천 현지로 출하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지난 '97년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터빈제어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 시스템의 핵심장치인 제어 응용소프트웨어의 제작에 성공하기까지 약 5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디지털 터빈제어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제어설비로 고온, 고압의 외부조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터빈제어시스템의 수요량

전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한중은 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측은 “발전소에서 인체의 신경계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 터빈제어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터빈, 발전기, 보일러를 포함한 발전소용 디지털 통합제어시스템의 제작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스템의 개발로 발전소용 기자재 제작 뿐만 아니라 제어설비를 포함하는 일체의 발전소 건설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중은 지난해에는 한국전기연구소 및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500MW급 발전기용 디지털 여자제어시스템을 개발,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기인시스템, 디지털 계전기·통신모뎀 양축으로 해외시장 공략

“올해부터는 송전선 디지털 계전기와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모뎀사업을 양축으로 국내와 해외의 전방위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모뎀사업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인시스템의 이기원 사장은 올해를 도약의 전기로 삼아 야심찬 계획을 추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모뎀 사업이 산자부의 중기거점개발과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통신모뎀과 관련 캐나다의 코리넥스社와 연간 5만대 약 3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미국 산호세에 마케팅 현지법인인 셀라인(Xeline)을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력계통 분야에서도 통신과 연계한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삼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현재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 사장은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모뎀 사업외에도 내년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기인시스템은 IMF를 겪으면서 한 때 힘든 고비를 맞기도 했으나 역경을 딛고 지난해말부터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한전에 송전선 디지털 계전기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한전의 연구개발자금 지원과 시험장소 제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아 개발에 성공했고 이제 연간 300~400면 정도 납품하게 됐습니다.”

기인시스템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난해와는 달리 급신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로운 사업추진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짜고 있는데 계획된 일이 잘 풀릴 경우 지난해의 수십배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인시스템은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에는 코스닥에 등록할 계획이다.

(주)이티아이 배문영 사장,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2000. 1. 28 열린 하광상공회의소 제2대 의원총회에서 주식회사 이티아이(구. 이화전기) 배문영 사장이 제2대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되었다.

하광상공회의소는 860여 회원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1999년도 회비징수율 45%에 2억4천여만원의 회비가 징수되고 있으며,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된 (주)이티아이(구. 이화전기) 배문영 사장은 무엇보다도 하광상의에 대한 회원사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준비,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